

보도설명자료 (‘18.4.10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미세먼지 감축목표 반년만에 포기한 환경부”
(‘18.4.10, 문화일보)

1. 기사내용

- ① 미세먼지 감축계획을 반년만에 포기한 환경부
- ② 미세먼지 감축계획을 31.9%에서 1.4% 줄인 30.5%로 하향 조정
- ③ 목표 조정은 화력발전 추가 건설 때문이라고 해명

2. 등 보도내용에 대한 정부 입장

< ①에 대하여 >

- 환경부는 미세먼지 임기내 30% 이상 감축목표 달성을 포기하거나 포기한 적이 없어 사실과 다름
 - 특히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더욱 강화된 목표를 갖고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것이 기본방향임

< ②에 대하여 >

- 지난해 9월 「미세먼지 종합대책」에서는 i)약 시나리오 23.6%, ii)중 시나리오 27.3%, iii)강 시나리오 31.9%를 제시하고, 구체적 감축목표는 이행계획 수립이나 점검과정에서 확정기로 함



* 강 시나리오 31.9%는 발전, 산업, 수송, 생활 분야에서 현실 가능성이 낮은 대책도 시행한다는 가정하에 세운 목표임

- 이후 강 시나리오 위주로 감축목표를 검토하여 지난해 최종 목표를 30.5%로 확정하였고, 이 감축목표는 과거(‘21년까지 14% 감축목표)에 비해 획기적이며 전향적인 목표임

< ③에 대하여 >

- 충남 서천 등 석탄화력 7기 건설은 미세먼지 추가 배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
- 현재 산업부-환경부는 기존 석탄발전소의 추가 LNG 전환, 석탄 발전의 불철 가동중지 대상 확대, 운영중 석탄발전의 환경설비 투자 등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량 증가가 없도록 관리할 계획임
- 또한, 친환경적 발전연료 세제 조정, 환경비용의 발전원가 반영, 고농도시 석탄발전 가동을 하향 조정(상한제약) 등을 통해 석탄발전 비중을 줄이고 LNG 발전의 비중을 점차 늘려 나갈 계획임

※ 문의 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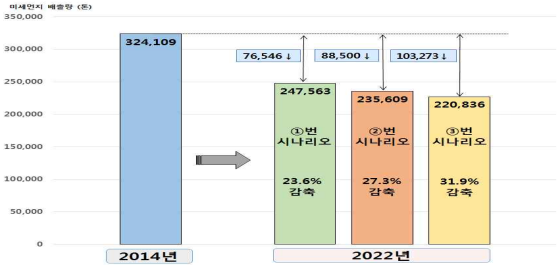
산업통상자원부	전력산업과	최우석 과장(044-203-5240)
		장지혜 사무관(044-203-5246)
환경부	푸른하늘기획과	홍동곤 과장(044-201-6860)
		안중기 사무관(044-201-6871)
		유정아 연구사(044-201-6869)

붙임

미세먼지 30% 감축 목표 시나리오

□ (개요) 핵심 4대 부문(발전, 산업, 수송, 생활) 주요 감축대책의 강도 조절 등을 통해 '22년 미세먼지 배출 삭감량 산정(3가지)

□ (결과) '14년 대비 최소 23.6%~최대 31.9% 수준까지 배출량 삭감 가능



□ (시나리오별 주요대책)

부문	①번 시나리오	②번 시나리오	③번 시나리오
발전	- 노후 석탄화력 셧다운, 조기폐지 - 운영 중인 석탄화력 관리강화	①번 시나리오 + - 공정률 낮은 석탄화력 원전 재검토 -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	②번 시나리오 + '30년까지 20% 목표로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
산업	- 공장시설 배출기준 강화 - 수도권 총량관리 강화	①번 시나리오 + - 수도권외 총량관리 시행 - 먼지총량제 도입 - NOx 배출부과금 부과	②번 시나리오 + - 총량대상 사업장 대폭 확대 - 공장시설 배출기준 추가 강화
수송	-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운행제한 확대 - LPG차 등 친환경차 확대 - 선박, 건설기계 관리	< 좌 동 >	②번 시나리오 + -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확대(22년 88.3만대) -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강화(22년 3.1만대)
생활	- 도로청소차량 보급 확대 - 도로 VOCs 함유기준 강화	< 좌 동 >	< 좌 동 >